닭의 능력향상은 환경과 관리개선에서

오 세 정
(전대 축산과 교수)

닭의 능력향상은 환경의 조성과 관리개선이 선행조건

닭의 품종의 선택도

자기가 경영하는 양계장의 시설상태와 환경조건 그리고 관리방법에 따라서 적합한 품종이 선택되어야 한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환경여건과 관리상태가 나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일이 많다.

그러니 병아리가 나쁘다는 품종의 탓, 부화장의 탓을 하기에 앞서 자기의 시설환경과 관리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반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치 않고 남한테서 원인을 찾고 전가시키려는 풍조가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된다.

더우기 핑계를 걸어 외상병아리 값 외상사료대를 갚지않는 사례를 볼때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물론 부화업자가 다 잘 하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부화장도 정비되고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다고 본다.

값싸고 외상으로 구입한 병아리일수록 이러한 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관리자의 정신자세가 해이하여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값비싼 병아리를 현금으로 애태워 구입하였다면 관리자의 성의와 노력이 비례되어 좋은 관리가 되므로 사고가 적어 말썽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과 선택도

우리나라의 사료 품질은 거의 나무랄 수 없이 좋아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성면에서 자기의 품종과 환경 및 관리에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여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덮어놓고 고단백 고열량의 사료가 좋은 것은 아니다. 닭의 년령, 능력, 상태, 환경(온도, 습도, 환기, 시설등) 관리방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선택권은 양계업자 자신에 있는 것이니 자기의 실정에 알맞는 사료를 선택 급여하도록 연구 노력하며, 배워서 실천하는데 주저말아야 한다.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술자인 척하는 고집과 타성을 버리고 항상 배우고 실천하며 창의와 연구로서 개선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모르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양계장의 환경조성과 관리면 임을 현실정하에 더욱 느끼게되어 중요사항을 열거 설명코자 한다.

1. 닭장내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먼지와 냄새는 환기가 나쁠때 더욱 심하다. 닭의 환경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

환기가 나쁘면, 질병의 발생과 오염, 식욕의 감퇴생리적인 대사작용의 장해를 받게되어 능력

의 저하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촉감이 적으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계사내의 공기이나 무엇보다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신선한 공기속에서 닭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기를 철저히 하여 주어야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하면 먼지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고 냄새도 적어진다.

2. 공중(空中)소독을 할 것

새 계사에 환기가 철저히 되었으면 그리 큰 효과는 없으나 오래된 계사에 많은 마릿수를 수용하고 먼지가 날때 공중 분무소독을 자주하면 호흡기 질병의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케이지 계사와 육추사에서는 하루에 한번 또는 2~3일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다.

3. 밀사(密飼)와 밀집(密集)하는 관리는 폐계발생 증가에 큰 원인

병아리나 큰 닭이건 간에 일정한 면적에 많은 마릿수를 수용사양하는 것은 강약(强弱)의 속출로 폐사 및 폐계의 발생이 많아지며 능력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환기도 불량하며 질병 발생이 많아지고 사료의 효율이 나빠진다.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나쁜 점이 많으니 무리한 수용을 삼가하고 적은 수를 사육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적은 수를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밀집(密集)되는 관리를 하면 밀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사료나 물을 줄때 한 곳에 모여들면 서로 밟고 치여서 건강한 닭이 다치고 약하여지며 바로 폐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관리중에 한 곳에 몰려서 밟히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밀집관리는 당연한 것으로 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타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유채식과 자유급수를 하던가 또는 모이 그릇과 물그릇을 여유있게 하며 또한 줄때 일직(새벽)관리를 하던가 모이를 한주먹 헤쳐주고 모이 그릇에 넣어주던가 혼자 주지 않고 양쪽에서 동시에 관리하여 분산시키는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밀집되는 관리가 한번이라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관리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4. 놀래지 않게 할것

닭이 놀래면 풍기고 한곳에 몰리여 밟히고 다치게되며 산란하는 닭은 난추 난파열등 생식기관 장해와 질병의 큰 원인의 되고 혈란(血卵)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갑자기 크게 놀래면 산란율이 1%저하되고 도태율이 증가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니 관리중에 닭이 놀래지 않게 행동에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거 부득히 자주 놀랠 경우에는 아예 라디오의 스피커를 달아 항상 음악을 들려주므로써 소음에 의해 놀래게 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또한 개, 고양이, 조류(鳥類)의 내습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거 닭이 흔히 놀래게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방지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된다.

더욱이 평사(平飼)보다 케이지나 바터리에서 피해가 크다.

5. 환경과 관리의 급변(急變)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닭의 생활환경은 좋은 조건하에서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 조건의 급변은 큰 스트레스에 요인이 되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즉

1) 급여하는 사료성분의 급변과 사료배합비의 변경으로 오는 스트레스
2) 온도고저의 급변에서 오는 스트레스
3) 갑작스런 바람의 내습
4) 사료의 분쇄입자 대소의 급변
5) 반죽모이와 마른모이의 변경
6) 급수온도와 신선한 물
7) 관리자의 변경으로 오는 관리양식의 급변과 옷색의 급변

8) 닭의 이동

9) 검등관리의 급변

10) 내부시설의 변경 등

이상 여러가지를 들 수 있는데 아무리 충은 것이라도 닭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서서히 변경시키는 관리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6. 점등 관리의 철저

일조시간의 변화와 장단에서 오는 환경적인 여건을 점등에 의하여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능력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품종의 관리지침에 의거 육추시기와 주령(週令)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시되여야 한다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검등은 닭의 경제적인 수명과 능력을 크게 좌우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계획표에 의거 철저히 시간의 차질없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7. 중대추시기에 방사(放飼)

전업 양계업자의 경우 병아리부터 산란계까지 흙바닥을 한번 밟지 못하고 바터리에서 케이지로 옮겨가면서 사육하는 집약(集約) 밀집(密集) 사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숙(早熟)과 경제적인 수명의 단축,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게되어 능력의 저하 또는 기복이 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육추 폐온(廢溫)후에 중추 부터 초산시작 20일 전까지 가급적이면 넓은 방목지에 방사하여 육성기간에 몸을 건실하게 만들어야 성계생존율도 좋고 수명이 길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방사를 하면 신선한 공기의 호흡과 태양광선의 조사, 신선한 무기물의 섭취 및 풀을 먹게되므로 비타민 섭취와 사료절약 및 소화기관이 충실하게 되고 자유로운 운동으로 체질이 강건하여 진다.

그러나 육성중 가능하면 방사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방사하면 호흡기성 질환은 적어지는 대신 구강을 통하여 감염되는 질병이 많아질 염려는 있으나 이것은 이동(移動)방사나 신선한 지대에서는 반년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된다.

8. 산란계에 있어서 너무 조숙시키지 말것

닭의 성성숙은 유전, 영양,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나 지나친 조숙은 난중이 적고 표준난중으로 되는 기간이 길어지며 또한 닭의 경제 수명의 단축, 산란피크선을 뜻 올라가던가 혹은 올라갔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곡선을 보여 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니 사료의 품질(저단백 저에너지, 저단백 중 에너지의 사료)을 고려하여 급여하고 일조시간의 단축등으로 23~24 주령에 초산을 시작토록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초산시각이 1~2주령 빠르면 그 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니 조숙이 되지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만숙시키면 불리한 경영이 되고 균일한 사양관리로 초산이 일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균일한 육성관리의 비결

밀사와 밀접하는 관리를 않했다 하더라도 체중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으며 조숙되는 것과 만숙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것은 질병과 개체의 상태, 물리적 또는 기계적 손상, 관리의 부주의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은 중추시에 체중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1차로 구분 사육하고, 2차로 1차 구분된 것을 다시 체중과 상대별로 각각 반분하여 사육하며, 그 상태에 따라서 영양성분(사료의 품질)을 조절 급여하면 전군(全群)이 거의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발육이 균일치 못한 것을 계속 같이 수용하면 약한 것은 회복이 늦어질 뿐아니라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10. 계사의 위생관리

계사내는 항상 환기의 철저와 건조가 필수적인 여건이나 평사의 경우 닭을 "올인 올아웃"(한꺼번에 입사하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형식)후 소독의 철저를 기할 것이 바닥이 흙바닥인 경우는 깨끗한 모래를 15cm 이상 새로 깔아줌으로서

오염된 계사바닥의 질병을 막고 바닥의 건조를 촉구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운동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에 2~3회정도 바닥흙을 생땅이 나올때까지 긁어내고 대신 깨끗한 모래를 집어 넣어야 한다.

11. 곰팡이균에 주의

자리깃에 곰팡이나 사료의 변질(배합사료 또는 단미사료에서 발생된 곰팡이균)에서 발생된 곰팡이균이 닭의 입속에 들어 감으로서 호흡기성 전염병과 같이 호흡증상을 일으키게 되니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곰팡이균이 폐, 기낭,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여 큰 피해를 주게되니 곰팡이균이 발생된 사료나 자리깃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12. 양질의 녹사료(綠飼料)를 다시 먹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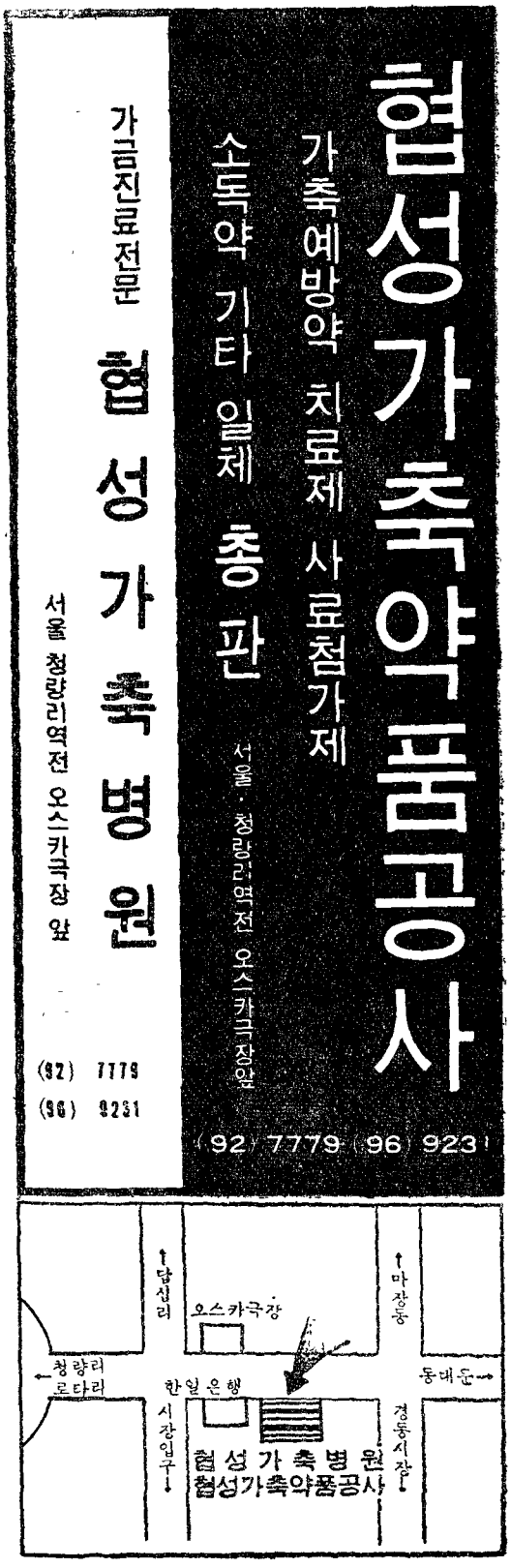
과거에는 으레히 아까시아잎등 녹사료를 배합하여 먹이던 것이 근래는 값비싼 첨가제로 대치하고 있는 바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양계업자는 양질의 청초를 재배 생산하던가 채취하여 중추부터 산란계까지(폐계 처리될때까지) 5~10%정도 다시 급여할 것을 권장한다.

청초를 급여하므로서 비타민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사료비의 절약, 계란의 황색소의 증가, 수정율의 향상, 육색의 황색착색의 증가로 유리하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료의 실정과 외화의 절약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 좋은 일이니 반드시 녹사료를 첨가 배합하는 양계가 되어야 하겠다. 단 양질의 것으로 일관성있게 배합하여 급여하도록 할 것.

13. 년령에 따르는 기별급양과, 계절과 환경에 따르는 관리

육계나 산란계 할 것 없이 주령에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료의 카로리 단백비 수준을 달리한 적합한 사료를 먹이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여름철 특히 채식량이 감소될 때와 추운 엄동에 사료를 주의 할것.